

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- WSJ, 블룸버그 등 유료 구독자의 경우 법적 이슈 때문에 원본을 링크로 연결한 점 널리 양해 요청드립니다)
- 일일금융정보 뉴스와 관련하여 신한은행 아메리카 측에서도 아마 비슷한 이슈로 당분간 서비스를 중단할 예정입니다.

[미국 경제]

- Bloomberg: 클리브랜드 연준 총재 “2028년까지 연준 인플레 목표치 상회”

[미국 금융]

- Bloomberg: 미국 금 보유고, 사상 최대 랠리 후 1조 달러 돌파
- WSJ: 미 회사채 부실한데 투자자들은 과신
- Bloomberg: 골드만삭스 “경기 침체 리스트 낮아져 주식 낙관적” 전망

[트럼프 행정부]

- Bloomberg: 연방 정부 셧다운 앞두고 트럼프, 민주당과 대립
- Bloomberg: 셧다운 발생되면 어떻게 되나?

[무역전쟁]

- YahooFinance: 트럼프, 영화와 가구 관련 새로운 관세 천명
- Bloomberg: Nvidia 중국 후퇴...Huawei AI 칩 생산량 두 배
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- WSJ: Walmart CEO, “AI가 모든 직업 뒤바꿀 것”
- Reuters: Nike, 내년 스포츠 대축제의 해 앞두고 마케팅 강화

[미국 경제]

Bloomberg: Fed's Hammack Is Still Worried About Outlook for US Inflation

클리브랜드 연준 총재 “2028년까지 연준 인플레 목표치 상회”

- 클리브랜드의 연준 총재인 Beth Hammack는 금리 인하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. 그는 인플레가 오는 2028년까지 연준의 목표치를 넘어설 수 있어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. 목표치 2%까지는 2027년 말이나 2028년 초까지는 내려오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.
- 그는 연준 인플레 목표치 2%를 넘어선 기간이 4년 반이나 되었다며 앞으로도 당분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.
- 그는 인플레 압력이 헤드라인 물가와 핵심 물가 모두에게 부담이 되고 있고 특히 서비스 분야가 그러하다고 강조했다.
- 이와 관련하여 그는 제약적인 금리 정책의 지속적인 유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.

Bloomberg 기사

[미국 금융]

Bloomberg: US Gold Reserves Hit \$1 Trillion in Value After Record Rally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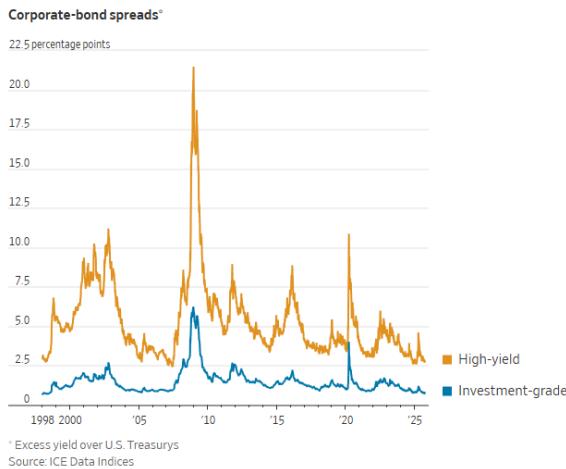
미국 금 보유고, 사상 최대 랠리 후 1조 달러 돌파

- 연방 재무부의 금 보유액이 온스당 \$3,824.50를 넘어서며 1조 달러를 돌파했다. 이는 1973년 미국 의회가 정한 온스당 \$42.22 가격 기준 110억 달러의 90배가 넘는 수준이다.
- 금값이 급등한 배경에는 무역 전쟁, 지정학적 긴장, 미국 재정 위기 우려로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졌기 때문이다.
- 미국 재무장관의 발언으로 금 보유액을 시가로 재평가할 가능성이 제기되었지만, 실제 검토 중인 사안은 아니라고 보도됐다. 만약 시가로 재평가가 이뤄진다면 약 9,900억 달러가 정부 재정에 추가될 수 있으며 이는 올해 8월까지의 1조 9,730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 적자의 절반을 충당할 수 있는 규모이다.

Bloomberg 기사

WSJ: The Credit Market Is Humming—and That Has Wall Street On Edge 미 회사채 부실한데 투자자들은 과신

- 회사채 소유 수익률이 수십 년 만이 가장 낮은데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회사채 투자에 크게 베팅하고 있다.
- 미 국채와 비교한 투자등급 회사채의 추가적인 수익률(스프레드)는 올해 9월에 0.74%로 떨어져 지난 1998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.
- 사모펀드 부실률은 팬데믹 이후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데 Fitch가 비공개적으로 모니터링한 관련 부실률은 7월에 9.5%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.



WSJ 기사

Bloomberg: Goldman Strategists Turn Bullish on Stocks as Recession Risk Low 골드만삭스 “경기 침체 리스트 낮아져 주식 낙관적” 전망

- 골드만삭스는 올해 말에 글로벌 증시가 계속 랠리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. 그 이유로 미국 경제의 유연성, 매력적인 벤류에이션, 그리고 연준의 완화적인 금리 정책을 꼽았다.
- 골드만삭스 전략팀은 좋은 기업 실적 성장, 침체 없는 연준의 완화 정책, 그리고 글로벌 재정정책 완화 등을 인용하면서 향후 3개월간 주식에 대해 비중확대 (Overweight)를 제안했다.
- 전략팀은 단기적으로는 성장 둔화와 금리 충격에 따른 지속적인 리스크를 경고하고, 지역적으로 중립적 투자 유지, 국제 분산 투자 선호를 제안했다.

Bloomberg 기사

[트럼프 행정부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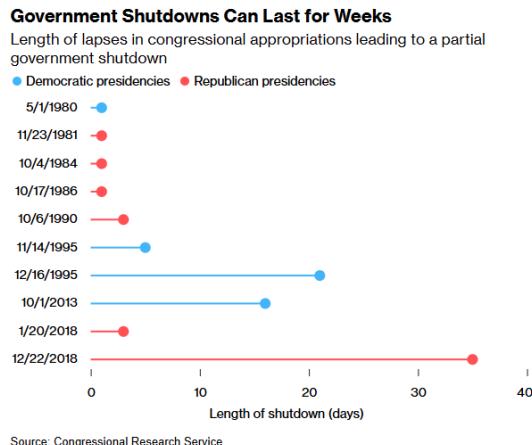
Bloomberg: Trump to Face Off With Democrats Ahead of Shutdown Deadline 연방 정부 셧다운 앞두고 트럼프, 민주당과 대립

- 트럼프와 의회 지도자들이 오늘 월요일 백악관에서 연방정부 셧다운을 앞두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.
- 민주당 입장은 오바마 케어 세금 공제를 중산층에 영구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3천5백만달러의 지출을 원하면서 동시에 트럼프의 최근 통과된 감세법의 메니케이드 삭감을 취소하길 희망하고 있다.
- 반면에 트럼프는 민주당의 요구와 이민 관련 이슈를 연결시키면서 불법 체류자들을 위한 1조 달러의 세금 지원을 비난하고 있다.

Bloomberg 기사

Bloomberg: Here's What Happens When the US Government Shuts Down 셧다운 발생되면 어떻게 되나?

- 미 연방정부 셧다운은 일상적인 상황이 되었고 모든 연방 부처는 이에 대비한 대응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다. 그러나 트럼프는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변경하고 있다.
- 다음 주 셧다운은 대부분의 경우보다 심각할 것으로 보이는데 의회는 연방부처들의 예산을 제공하는 12개 세출법안 한 개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. 특히 트럼프는 미필수 연방 공무원들을 영구적으로 해고시키겠다 위협하고 있다.
- 그런데 군 운영, 법 집행, 식품 검사 등 생명과 자산을 보호하는 활동은 계속 유지하게 되며 연준과 소비재정보호국 등은 계속 운영된다.



Bloomberg 기사

[무역전쟁]

YahooFinance: Trump promises new tariff blitz aimed at movies, furniture 트럼프, 영화와 가구 관련 새로운 관세 천명

- 트럼프는 오늘 월요일 외국산 영화에 100% 관세와 수입 가구에 대해서 '상당부문의'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혔다. 새로운 관세 조치가 새로 시작된 것이다.
- 그는 소셜 미디어에 영화 제작 비즈니스가 미국으로부터 도둑 맞았다고 올리며 "중국과 다른 나라들에 빼앗긴 노스캐롤라이나의 가구 산업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가구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.
- 트럼프는 이미 지난주에 의약품과 대형 트럭, 부엌 캐비넷에 관세를 매긴다고 밝혔다.

YahooFinance 기사

Bloomberg: Huawei to Double Output of Top AI Chip as Nvidia Wavers in China Nvidia 중국 후퇴...Huawei AI 칩 생산량 두 배

- Huawei는 2026년까지 자사의 최상급 AI 칩인 Ascend 910C 생산량을 현재의 두 배인 연 60만 개로 확대할 계획이다. Huawei와 SMIC가 생산 병목 현상을 일부 해소하며 중국 반도체 자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.
- 또한 Nvidia 를 대체하기 위한 3년 계획의 일환으로, Huawei는 950, 960, 970 등 Ascend 시리즈 후속 제품을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출시한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공개했다.
- 하지만 현재 Huawei의 칩은 Nvidia의 최신 GPU에 비해 성능이 현저히 낮으며 주로 추론용으로 사용되고 있다. SMIC의 7nm 공정을 활용해 칩을 생산하지만,

- Nvidia 의 4nm 기술에 비해 여전히 두 세대 뒤처져 있다.
- 중국 장비업체들도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Huawei의 생산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. Huawei는 수천 개의 AI 칩을 자체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UnifiedBus 기술도 발표하며 양으로 승부하는 전략을 제시했다.

Bloomberg 기사
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WSJ: Walmart CEO Issues Wake-Up Call: 'AI Is Going to Change Literally Every Job' Walmart CEO, "AI가 모든 직업 뒤바꿀 것"

- Walmart CEO는 앞으로 AI가 모든 직업을 완전히 뒤바꿀 것이라며 일자리 변화를 예고했다. 현재 고위 회의에서 모든 직무에 대한 AI 영향 분석과 재교육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.
- 향후 3년 간 전세계 총 고용 인원수는 유지될 것이지만 직무 구성은 크게 변화할 것이다. 예를 들어 기존 창고 업무 일부는 자동화되고 새로운 직무도 등장할 것이다.
- 월마트 또한 고객 응대 등에서 "사람이 사람을 상대해야 한다"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 챗봇, 공급망 분석, AI 기반 자동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.
- 다른 기업들 또한 직원들을 재교육하고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리더십을 발휘 할 수 있는 인재를 발굴하고 있다. 전문가들은 AI로 인한 실직보다 AI가 초래하는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인재의 도태를 경고하고 있다.

WSJ 기사

Reuters: Nike marketing plans in focus ahead of crucial year for sports events Nike, 내년 스포츠 대축제의 해 앞두고 마케팅 강화

- 나이키는 올해 마케팅 예산을 전년 대비 9% 늘려 16억 3천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향후 월드컵, 올림픽 등 대형 스포츠 이벤트를 중심으로 공격적인 광고 전략을 펼칠 예정이다. 특히 2026년 월드컵이 미국, 캐나다, 멕시코에서 열리는 만큼 미국 시장 내 브랜드 파워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.
- 최근 몇 년간 나이키는 라이프스타일 제품 중심의 마케팅으로 정통 스포츠 브랜드 이미지가 약해졌다는 비판을 받아왔다. 이에 따라 주요 스포츠 스타들과의 협업, 고성능 제품 라인 홍보에 집중하며 운동선수 중심 브랜드로 마케팅 전략을 집중하고 있다.
- 하지만 미국 내 소비 문화, 중국에서의 수요 불확실성 등이 나이키의 수익성 개선에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다.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이키는 마케팅 강화와 함께 재고 정리, 가격 정책 조정, 유통망 재정비 등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.

Reuters 기사

KOCHAM | 460 Park Ave. Suite 410 | New York, NY 10022 US

[Unsubscribe](#) | [Constant Contact Data Notice](#)